

## ‘중요문화재 옛 쇼텐인쇼인(正伝院書院)’

### 쇼텐인쇼인

쇼텐인쇼인은 조안과 마찬가지로 1618년에 겐닌지 절에 있는 우라쿠의 저택 일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쇼텐인쇼인이 보여주는 것은 원래 쇼텐인(正伝院, 정전원)이라 불리던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쇼텐인은 큰 겐닌지 절 경내에 있는 탐두사원으로 우라쿠의 개인실과 정원, 다실, 심지어는 불전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쇼텐인의 쇼인은 우라쿠가 손님을 대접하거나, 독서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1908년 쇼텐인의 각 부분이 다양한 매입자들에게 매도되었는데, 이때 쇼인은 미쓰이 다카미네가 매입하여 조안과 함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우라쿠엔 창설의 일환으로 이누야마(아이치현 이누야마시)로 이축되었고, 우라쿠가 있던 무렵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건물 배치도 원래의 우라쿠 저택과 비슷하게 재현되었습니다.

### 복원공사

1971년에 재건될 때 건축가 호리구치 스테미(堀口捨己)는 1799년에 그려진 우라쿠 저택의 그림을 참고하여 쇼인의 외관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호리구치는 미쓰이 가문이 추가한 쇼인과 다실을 연결하는 지붕 딸린 통로를 철거하고, 쇼인의 남쪽 가장자리에 원래 존재했던 낮은 난간을 재현했습니다. 호리구치는 또 남쪽에 배치할 아주 긴 직사각형 돌계단을 주문했습니다. 메이테쓰가 쇼인을 취득할 당시 지붕은 경량의 과도모양 기와를 쌓은 산카와라부키(기와지붕)였지만, 옛 도면에는 평평한 나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리구치는 모양이 비슷하고, 내구성이 있는 동판 지붕을 선택했습니다.

### 건축의 특징

쇼텐인쇼인의 정면 입구는 북쪽에 있으며, 예로부터 기품과 격조를 나타내는 완만한 커브의 차양(가라하후, 중앙은 활꼴에 양끝이 곡선형으로 된 건축양식) 아래에 있습니다. 쇼인에는 이 기와지붕 입구 외에 6개의 방이 있으며, 건물 서쪽에는 미즈야라고 불리는 부엌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라쿠가 있던 시대에 이 방은 사실 미즈야가 아니라 쇼인과 쇼텐인의 불전을 잇는 복도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입구에서 내벽을 보면 눈길을 끄는 흰색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은 색으로 된 부분은 건물의 대들보나 버팀목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의 진흙 회반죽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망간이 표면에 녹아들면 산화되면서 가장 바깥층이 갈색을 띠는 검은색으로 변색됩니다. 단, 벽 안쪽에 나무틀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 영향이 경감됩니다.

### 후스마에(맹장지에 그린 그림)

쇼인의 방은 후스마(襖)라고 하는 슬라이드식 큰 장식 패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후스마는 병풍처럼 여러 개의 판에 걸쳐 그려진 풍경화가 많은데, 쇼인의 후스마는 우라쿠가 있던 시대의 일류 화가들이 장식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방의 후스마에는 하세가와파(長谷川派) 창시자인 하세가와 도하쿠(長谷川等伯, 1539-1610)가 그린 것도 있었습니다. 8 장의 패널에는 중국 고대 회화의 주제로 자주 사용되는 연꽃, 난초, 국화, 매화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세가와 특유의 스타일로 그려진 수목과 바위, 인물 등이 특징인 후스마에는 그의 중년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쇼텐인이 창건되기 전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우라쿠의 옛집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인의 다른 후스마에는 일본 그림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노파(狩野派) 화가들의 수목산수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후스마에는 아주 오래되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보전을 위해 쇼인에서 반출되었습니다. 하세가와가 그린 2 장의 국화 후스마에는 우라쿠엔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인 수집가의 소유로 추측됩니다.